



사진출처 : Getty Images

식당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일어선다면...



남광현 목사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namkwhn@hanmail.net · kwangsung.or.kr

세상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필자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 됨의 기준과 그 실천적 삶을 나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붙여 준 이름이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5-26).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달랐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달랐다.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월간목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서’라는 주제로 원고 청탁을 받고서 필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만 55년여를 살았고, 목사로서는 25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 줄까?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하고 말해 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그리스도인’, 그 다름에 관하여

1_ 예배생활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자 목사이기에 좋은 것은 모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주일예배, 주일 저녁예배, 매일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를 드린다. 세어 보니 통상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린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 주는 표식의 기본은 역시 예배이고, 또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를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다. 말씀과 기도가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 담대함이 우리의 얼굴에 흐르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읽는다. 그때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교회라 불러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남광현 목사 | 월간목회 2025년 11월호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창 26:28-29).

2_ 기도생활이 아닐까?

새벽 4시 10분이 되면 아내와 함께 성전으로 간다.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집을 나서면, 신문을 돌리는 분이나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과 마주친다. 그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때가 세상이 필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는 첫 시간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5시에 새벽 1부를, 6시 30분에 새벽 2부 예배를 드린다. 필자는 아직은 젊고 건강하다 싶어 1부와 2부를 다 인도한다. 월요일은 부교역자에게 맡기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필자가 인도한다.

새벽예배 때는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읽은 후 15~20분 정도 말씀을 나눈다. 그리고 강단에서 반(半) 무릎을 꿇고 2부 예배가 시작할 때까지 기도를 드린다. 이러한 아침

의 두세 시간은 필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다. 또한 교우들과 교회와 나라,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필자의 삶에 위로와 소망, 기쁨과 용기를 주는 시간이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 교우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드러지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에 갖는 그 두세 시간이 필자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간이,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면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 1:48).



원광대 · 남영원 사진제공

3. 말씀생활이 아닐까?

대학생 시절, 필자는 캠퍼스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펼쳐 놓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뒤늦은 3학년 때 IVF 문을 두드렸다.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캠퍼스 안에 ‘손말사랑회’라는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섬기면서 알게 되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근본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답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때부터 필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다.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다.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 위로 날아오를 수 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

를 활짝 펴고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이고,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그때 말씀과 기도가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 담대함이 우리의 얼굴에 흐르게 된다. 세상이 그것을 읽는다. 그때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교회라 불러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4. 전도생활이 아닐까?

안디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전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거나 핍박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전하는 자란 뜻이리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전도하고픈 마음



사진제공 · 남광원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생활을 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CCC 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매주 목요일에 함께 전도를 나간다. 이제 5년이 되어 간다. 그전에는 카이로스라는 독일 집사님과 함께 전도했는데, 그분이 독일로 돌아간 뒤에 한동안 쉬었다가 CCC 목사님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은 전도해야지' 하는 결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가면 서너 시간을 보낸다. 전도하는 기쁨 때문이다. 사무실을 벗어나니 좋다.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맘도 즐겁고, 운동도 되니 즐겁다. 주로 '사영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다시 듣게 되니 좋다. 그리고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을 읽는 기쁨을 누린다. 무엇보다도 꽁꽁 닫혀 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교회까지 나오는 걸음들을 볼 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가끔, "아니 담임목사님이 전도를 다합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기쁘는데, 이때는 여러 생각이 든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가을이면 한두 달 동안 '생명나눔

축제'를 가진다. 최근 3년은 축제 기간 중 주일에 적십자 '헌혈버스'를 불러 교인들과 함께 참여했다. '나의 피로 육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슬로건도 있다. 주일에 교회 주차장 안에 서 있는 헌혈버스를 볼 때,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생각해 보면 흐뭇해진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7).

5_ 생활신앙이 아닐까?

광성교회를 오늘의 광성교회로 이끄신故 김창인 목사님께서 강조하던 말씀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려 말고, 생활신앙이 되게 하라!'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보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故 김창인 목사님이 강조하신 ‘신앙생활을 하려 말고, 생활신앙이 되게 하라!’를 되새긴다. 이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필자는 올해부터 식당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일어선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다.

남광현 목사 | 월간목회 2025년 11월호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지상명령에는 ‘전도’만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그쳐서도 안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김 목사님은 ‘생활신앙’이란 말을 만들어 종종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동안 필자가 힘썼던 ‘생활신앙’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원고 청탁을 받고 돌아보았다.

금주, 금연, 욕 삼가기, 말 예쁘게 하기, 먼저 인사하기, 엘리베이터 기다려 주기, 지하철 자리 양보하기, 보행자 기다려 주기, 명절에 아파트 경비실에 선물 나누기, 앞집과 위 아랫집 선물 나누기, 택시 거스름돈 받지 않기...

올해부터 시작한 일이 있다. 식당에서 식탁을 정돈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남은 음식을 국그릇에 모아 둔다. 비운 그릇들을 종류대로, 크기대로 포개어 놓는다. 수저도 한곳에 모아 놓는다. 식탁에 떨어진 음식이 있으

면 휴지로 닦고, 휴지도 한곳에 모아 놓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에게는 작은 수고지만 주인이나 종업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식당을 하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을 섬기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다. 분명히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도 그것을 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자리가 지저분하다면 어떨까? 반대로 이렇게 식탁을 정리해 주고 일어선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를 기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다!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 큰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슥 8:23).^①